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73호(구393호) 2008. 9. 7.(격주간)

속 사람을 진리로 채우는 기쁨 「제8회 말씀퀴즈대회」 열려



제7회 말씀퀴즈대회 본선

막바지 더위 기세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들의 열기 앞에서는 한풀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다.

남선교회 총연합회(회장 문경진 장로)가 주최하고 남선교회 서울지방회(회장 송석길 장로)에서 주관하는 「제8회 말씀퀴즈대회」 1, 2차 예선이 8월 24일 주일 각각 대예배와 저녁예배 후 본당에서 열렸다.

성도의 말씀 무장 생활화 촉진을 위해 해마다 열리는 이 대회 1차 예선은 전국 지교회 아동부터 남

녀장년 전 성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차 예선에는 90점 이상을 얻어 1차 예선을 통과한 성도들이 참여했으며, 단답형 5문항, 요절 쓰기 15문항이 출제됐다.

2차 예선을 통과한 본교회 30명, 지교회 16명, 모두 46명의 참가자가 9월 7일 주일 저녁예배 후 본당에서 열리는 본선에서 마지막 자웅을 겨룬다.

한편,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매일 성경 1장 읽기와 요절 한 구절 암송하기를 생활화하면서 주님

의 마음을 닦아가고자 힘쓰고 있다. 요절은 매주 설교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로 후보 뒷면에 게재되며,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후보에 실린 성구 365구절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 수상자도 주의 종, 대학선교회, 가나안선교회, 남선교회, 지교회로 다양한 층에서 나오고 있다(3번 참조).



『20세기 세계 기독교』 학술 도서에 이재록 목사 연합대성회 사진과 관련 내용 게재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옥스버그 포트리스(Augsburg Fortress) 출판사에서 발간(2008. 6. 1.)한 『20세기 세계 기독교』에 '이재록 목사 초청 운동라스 연합대성회' 사진과 관련 내용이 게재되었다.

이 책자는 20세기 기독교 역사를 교과, 대륙별로 기록한 학술도서로 제2장 <라틴아메리카 내의 오

순절의 변화>에서 '재정적 어려움과 의료시설이 부족한 나라의 국민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치유성회를 참여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옥스버그 포트리스(Augsburg Fortress) 출판사는 미국 복음주의 루터 교단 소속의 학술 및 신학교재 전문 출판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칼럼 Column 내면이 아름다우면

요즘에는 외모이상주의라 할 정도로 남녀를 구분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이라는 사실이 이익을 달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진리가 일한 만큼 삶의 축복과 더불어 바깥의 아름다움도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사나운 인성이 선하고 고운 인성으로 바뀌어, 근심 걱정으로 어두운 얼굴에 영적 빛이 일해 반짝 반짝 빛나게 되지요(전도서 8:1). 이목구비를 하나 하나 보면 평범한 얼굴이라도 남들에게 '그 사람 참 예쁘다, 아름다웠다' 하고 호감을 줍니다.

글·이재록 목사 중앙일보 연재 '길' 칼럼에서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미리아]
2부 · 오전 11:30	오후 8:00
[빛과소금성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식업성교회 오후 11:00]	오후 9: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일아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2부 · 오전 11:30
	저녁 · 오후 1:3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 보시려면

이 소식지를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 - 851-3845, 818-7309
• 온라인 번호(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당회장 이재록 목사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6)

세상에서는 건강하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 명예, 권세가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 등을 복 있다 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공부 잘하고 출세해 효도하면 그 부모가 복 있다 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 그 또한 복 있다 하지요.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걱정 근심 없이 평안히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만족과 필요를 채워줄 뿐이지 온전한 만족과 행복이 되지는 못합니다.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고,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한 가지가 없는 등 모든 것을 두루 갖추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영원 불변한 참된 복으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이 세상에서도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지요. 이러한 복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과 같이 견고하며 지금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첫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는 악을 품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갖가지 계교를 세워 상대를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악인의 꾀를 좇으므로 시험 환난 가운데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좇아 비진리를 행해서라도 높아지려 하고 부귀를 얻으려하니 큰 어려움에 빠지고 남의 말에 속아 손해를 보기도 하지요.

따라서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 지혜를 좇아 행할 때야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됩니다.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 하면 규정된 세 상 법을 행위적으로 어긴 사람을 말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라 하십니다.

하물며 행함으로 범죄하는 육체의 일(갈 5:19-21)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마 7:21). 크든 작든 범죄한 것은 드러나며 거기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지요(전 12:14, 고후 5:10).

이처럼 죄인의 길은 심판의 길, 사망의 길이므로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그들과 합류하거나 마음을 같이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멸시한다고 느끼면 고통받으며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섬겨지길 바라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므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이 땅에서도 못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라 인정받습니다.

넷째,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와의 율법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결국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며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깨우쳐 주므로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복된 길로 인도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 마음을 닦게 됩니다. 선, 사랑, 거룩함과 진실함을 사모하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믿

음의 형제를 대할 때에도 온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합니다.

여호와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 성령을 통해 자신을 깨우칠 수 있으며, 기도함으로써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릇됨에 따라 합당한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마음이 어찌 하나에 따라 그릇이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잘되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혀도 지배하고 다스리지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시편 1:3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까. ‘저는’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을 말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안에 심겨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시냇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그 잎사귀는 항상 청청하며 때에 맞춰 과실을 맺지요.

하나님 안에 심겨지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듯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립니다. 모든 행사와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그 뜻대로 살아가니 영혼이 잘되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갈 5:22, 23), 빛의 열매(엡 5:9), 팔복의 열매(마 5:3-12), 사랑장의 열매(고전 13장)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만큼 복을 받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시편 1:4, 5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탈곡하고 남은 쭉정이를 보면 겨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거나 불태워지는 것처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으로 갑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시험 환난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시험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키 주시기 때문에 능히 승리하며,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리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시험이 변해 축복이 되지요.

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시험 환난이 오면 이리저리 흔들리며 결국 넘어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으로 갑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보호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결국 사망이요, 지옥 불에 들어가는 심판(계 20:12)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6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형벌의 심판으로 아주 적은 것까지 남김없이 갚아져 망하게 되지요. 따라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요한3서 2절)을 받아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참된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따라서 참 믿음을 소유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분명히 깨달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도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말씀 암송으로 얻은 값진 은혜와 축복

전성도 말씀퀴즈대회 역대 대상 수상자를 만나다

전 성도 말씀 무장을 위해 2001년 시작되어 올해로 제8회를 맞는 말씀퀴즈대회 본선이 뜨거운 관심 속에 9월 7일 저녁에 배 후 본당에서 치러진다.

말씀 암송 비결과 그 과정에서 얻은 값진 은혜와 축복을 역대 대상 수상자를 만나 들어 본다.

진행자 먼저, 말씀퀴즈대회 역대 대상 수상자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송을 시작한 배경이 있으시겠지요?

정용임 일꾼이 될수록 말씀 무장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



"자투리 시간만 활용해도 넉넉히 해 낼 수 있습니다"
정용임 지도교사 (7회)

랑한다고 하면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나 될까?'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은영 처음부터 대회를 놓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 교역자로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자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더라고요"
조은영 전도사 (6회)

진행자 말씀 암송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자신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윤기상 암송시 테이프에 녹음해서 계속 들었어요. 팔복처럼 순서대로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4는 고난의 수니까 애통하는 자... 5절은 숫자 5와 음율이 비슷한 온유한 자... 이렇게 연상해서 외웠죠.

변현자 쓰기 듣기 말하기는 기본이고, 한 절 한 절 영적 의미를 생각하며 외웠어요. 성경을 찾아 앞 뒤 구절을 읽으며 말씀의 배경도 이해했지요.

이미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동안 꾸준히 읽었던 말씀이 쌓여서 도움이 되었어요.



"11시 24분 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떠올랐어요"
이미선 집사 (4회)

진행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텐데요.

고경석 늘 말씀을 외우다 보니 나중에 저도 모르게 혼자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변현자 번호가 119인 버스를 보면 시편 119편이 떠오르고, 찬양을 부르다가도 가사와 연관된 말씀 구절이 떠올랐어요.



"한 절 한 절 영적 의미를 생각하며 외웠어요"
변현자 집사 (3회)

이미선 저도 시계에 11시 24분 하고 나온 걸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생각나고 숫자만 보면 그런 식으로 말씀 장절이 떠올랐어요.

진행자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말씀퀴즈대회 준비해 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조수열 대교구장 사명으로 늘 심방이 잡혀 있고, 성도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는 마음이 쓰여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지요.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

는데도 머리가 다운된 것처럼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 당회장님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수열 목사 (5회)

께 인사드리니 "본선 잘하세요" 하시는데 새 힘이 오더라고요. 새벽 3, 4시까지 공부해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습다. 본선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 문제를 들으면 답이 마음에서 왔지요. 말씀 암송은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경석 1회 때에는 고시원에서 공부하며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회 때에는 실력으로만이 아닌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본선 단에 설 때부터 감동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학교 다닐 때 외우는 과목 잘하지 않았나고 묻지만 사실 암기과목을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나 횡수가 지날수록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지요.

진행자 말씀 암송을 통해서 그리고 대상 수상 이후에 영육간에 축복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윤기상 이사야 58:13에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암기한 뒤라 자연히 주일에 몸가짐에



"암송시 테이프에 녹음해서 계속 들었어요"
윤기상 형제 (1회)

더 주의하게 되고, 기도 중에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는 등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되었어요.

조은영 말씀 암송하면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우선은 당회장님 말씀에 순종한 것 자체로 기

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말씀 묵상하니 육신의 생각이 차단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온전치 못한 제 모습이 더 잘 발견되어 버려갈 수 있었지요.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더라고요.

또 매 순간 말씀을 떠올려 거하는 능력을 받고 성령의 밝은 음성과 주관을 받아 가니 심방할 때에도 더 총만해졌습니다. 같은 시간을 드러 심방해도 열매가 달랐지요.

물론 육적 축복도 뒤따라 왔고요. 12년 된 기도제목을 응답받았는데 그동안 기도한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좋은 집을 구하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터에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경석 심방을 가면 집 앞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성경을 뒤적이면서 '무슨 말씀을 쥐야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한 후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유 있게 심방을 준비할 수 있었지요.



"성경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 지더라고요"
고경석 집사 (2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수록 제 자신이 밝히 발견되면서 성경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암송한 것을 마음에 이루어나가는 연단의 시간도 있었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통과하자 대상 수상과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참가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수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잘 외워서 대상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용임 늘 바쁜 일상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투리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 활용해도 넉넉히 해낼 수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고, 말씀의 깨우침 속에 감동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좋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려고요.



● 새터민들의 모임 '주사랑선교회' 를 찾아

천국에 새 삶의 터를 잡은 사람들

보장받지 못한 행복

사산을 넘어 '안식처'를 찾아 온 새터민들,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실로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관료로 근무하다 이주한 엘리트 가운데에는 국가기관이나 연구소 등에 취직해 비교적 적절한 수입을 보장받는 이도 있지만, 학력이 낮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새터민들은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며 값싼 노동자로 취급받는다.

또한 북한에서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오기까지, 국경을 넘을 때마다 브로커들에게 건넨 커미션 때문에 많은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다. 북에 있는 가족도 외면할 수 없어 돈을 마련해 전달하면 그 과정에서 보통 30% 정도 수수료를 떼지만 아예 전액이 전달되지 않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주사랑선교회" 주일 낮 모임

뿐만 아니라 북에 있는 가족과 탈북과정에서 사고로 죽거나 눈앞에서 총살당한 가족,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아직 남한에 오지 못해 제3국에 숨어사는 가족을 생각하면 이들은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

이렇듯 저절로 아픔과 상대적 가난, 고독, 보이지 않는 차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들에게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오롯이 보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니 만큼 따뜻한 시선과 이해로 대하며, 믿음이 자라 스스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배려 또한 필요하다.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새터민들

2004년, 처음 '주사랑선교회'(지도교사 박상준 목사)가 태동할 당시 회원은 5명에 불과했다. 올해 초만 해도 70명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던 '주사랑선교회'는 현재 약 180명으로 괄목할 만큼 부흥을 했다. 이는 치료와 축복의 소식을 듣고 많은 새터민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간증'이 뭔지도 모르던 이들의 입에서 '당회장님께 직접 기도받거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통해 관절염, 위장병, 결막염, 책장암 수술 후유증, 심한 우울증 등이 치료되고 굽었던 허리가 펴졌다'는 간증이 줄을 이는다.

지난 8월 하계수련회에서는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뇌졸중을 치료받아 휠체어에서 일어났던 황성주 성도(가명, 함경북도 온성군, 35세)가 손수건기도로 깊고 있던 지팡이마저 내버리고 걷는 등 참석한 이들의 간증이 차고 넘쳤다.

북한에서의 심한 고생과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으로 많은 질병이 있었지만, 그들 표현대로 아픈데가 '일 없게' 된 것이다. 우리 교회로 전도받아 여러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이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환한 천국 소망의 빛이 드리

워졌다.

교구에 소속된 새터민들은 영혼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심방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왜 이 좋은 말씀을 이제야 들었다' 하며 지난 세월을 안타까워한다.

문명에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한 새터민들은 어린아이처럼 말씀

을 듣는 대로 행하려고 애쓴다. 이들 역시 여느 만민 성도처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음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를 저 멀리 날려 버린다.

북한에서 '생활총화'를 통해 자아 비판·상대비판이 몸에 밴 그들이지만, 이제는 주님 사랑으로 상대를 이해하며, 경계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하나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

MINI interview

우리 새터민들은 고운 정이 많고, 보은심(報恩心)이 깊어오

허명옥 집사 (가명, 주사랑선교회 회장, 함경북도)

Q 우리 교회 오신 계기는?

2003년 11월경, 한동안 무릎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객지에서 이래로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왔지요. 어느 날, 당회장님 책자와 '만민중앙소식'을 보고 부축을 받아 우리 교회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 이듬해 부흥성회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아 고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새 예루살렘 소망이 넘치기 때문이죠. 제 소망은 '주사랑선교회' 회원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곳곳이 살아갈 뿐 아니라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 모두 가는 것입니다.

Q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요?

저는 듣나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외쳤고, 그동안 60여 명을 전도했습니다. 제 몸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새 예루살렘 소망이 넘치기 때문이죠. 제 소망은 '주사랑선교회' 회원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곳곳이 살아갈 뿐 아니라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 모두 가는 것입니다.

Q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은?

아직도 북한에는 옥수수죽 한 사발도 먹지 못해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념적 이유도 있었지만 대부분 굶주림을 피해 죽음을 불사하고 탈북을 결심하지요. 중국을 거쳐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동물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새터민들은 작은 말 한 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지식층도 많아 동정하거나 거지 취급받는 느낌이 들면 더욱 그렇지요. 같은 민족이지만 인생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 격려가 절실합니다. 새터민들은 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며 보은심이 깊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변개할 없이 힘차게 달려 갈 것입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원 1동 275-77 ☎0511805-1863,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래2동 1323-12 ☎051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71 104-9 ☎0531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1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동동 37-1 ☎0421825-1205, 632-6283, 011-434-38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1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위평동 1181 ☎0621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충동 1001-2 ☎0621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정동 1532-3 ☎0521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1291-2253, 016-505-1537 ● 천안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인천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원동 600-22 ☎04119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침흥동 564-15 ☎0411667-4721, 018-618-6194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1546-1537, 011-701-0244 ● 청주만민교회 충청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1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61-215-0116, 010-4155-5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만민교회 충북 춘천시 연수동 1100 ☎0431845-0617, 019-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1247-8891~2, 016-207-9401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리동 1524-14 ☎0551353-9192, 010-3745-2119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사천동 선인리 301-5 ☎0551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림동 626-18 ☎0551289-9522, 011-9331-4405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1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1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동동 47-5 ☎0541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호차동 192-3 ☎0541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래동 742-4 ☎041464-4512, 016-539-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옥련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천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신동 873-6 ☎061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화재면 원창리 신153 ☎0611452-7443, 018-618-3037 ● 진해만민교회 전남 진주시 왕산구 효자2가 929-1 ☎0631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250-3 ☎0631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1251-1144, 010-7770-20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1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1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1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1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1556-8517~8, 019-234-3719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1995-9951, 011-107-107, 011-70-2073 ● 인천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미동 508-1 ☎0311485-9143, 017-366-53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중앙 5동 23-41 ☎0321863-9857, 011-287-7369 ● 김안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1569-3835, 010-7720-7770 ● 성남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311781-9839,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48-5 ☎021489-3766, 010-6712-2073 ● 무왕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1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동 158-5 ☎031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7 ☎0311840-2906, 019-251-3149
--	--	--